

들어가면서

보통 언약, 법, 사제신학이란 말이 무미건조하고 딱딱하며, 생동적(dynamic)이라기 보다는 정적인(static) 느낌을 주지만, 오경에서 법(Law)은 따로 떼어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이를 둘러싼 이야기(Story)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창세기 12 장)이후 족장들과의 언약은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시내산에서 법선포의 이유이며 이어지는 사제신학의 목적이다. 법은 '구원'의 방편이라기 보다는,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나열했다고 보면 된다. (참고도서. Bruce C. Birch, Walter Brueggemann, Terence E. Fretheim, and David L. Petersen,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99), 131-174.)

I. 줄거리—내용과 구성

출애굽기

-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게 된다(출 19:1-민 10:10)
- 신의 현현을 준비(출 19 장)
- 십계명을 통한 가르침(출 20 장) // 모압평야(신명기 5 장)
- 언약책 (출 21-23 장; cf. 24:7 “the book of the covenant”)
- 언약예식 (출 24 장)
- 사제신학(출 25-40 장)—창조/재창조 도식
 - 장막설계 (출 25 장-31 장)
 -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느님의 용서 (출 32-34 장)—언약 재확인 (출 43:9-10 // 창 8:21-22)
 - 장막 설계 (출 35-40 장)

레위기

- 구조상 오경의 중심부=> 예배와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음
- 크게 두 부분. 제사장 수칙(1-16 장); 성결법(Holiness Code, 17-26 장)
 - 희생제사 (레 1-7 장)—번제('olah, burnt-offering); 소제(minḥah, gran-offering); 화목제(shelamim, peace-offering)
 - 제사장 임명 (레 8-10 장)
 - 청결예법 (Clean/Unclean; 11-15 장)—분별력, appropriate boundaries=> distinctions (레 10:10)
 - 속죄제, the Day of Atonement (레 16 장)
- 성결법은 모든 이스라엘(신앙인)을 향한 소명: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19:2). => 창 17:1
- 거룩함은 성품이라기 보다는 생활방식=>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19:18 => 이방인 사랑으로 19:34).

민수기

- 민수기는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문제점을 다룬다. 오랜 노예생활에서 오는 복종의 덫에서 깨어나기란 쉽지 않다. 애굽탈출보다 어려운 것이 백성들로부터 몸에 배인 애굽의 덫/이데올로기를 지우는 일이다. (애굽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 민 16:13). 광야의 방황생활은 새로운 삶(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훈련, 수련과정이다.
- 내용상: 시내산 (1:1-10:10); Kadesh 광야생활(10:11-21:35); 모압평야(22-36 장)
- 구조상: 두 개의 인구조사(1 장, 26 장)
- 출애굽 세대는 불순종으로 모두 광야에서 사망
 - 민 10:11-25:18 은 출애굽기 15-18 장과 비슷한 사건의 배열 (만나, 바위에서 물이 솟음, 광야족속들과 전쟁, 출애굽 백성의 불평/불만).

- 다른 점이란,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용서받지만, 민수기에서는 용서가 없다. 모세조차도 같은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민 20:12).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등 어린 차세대들에게만 열린 미래가 있다 (민 26:63-65).
- 민수기 13-14 장의 결말=> 처음 인구조사에 든 자는 모두 죽는다(민 14:32-33). (Q.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안에 들었을까? 남의 얘기(역사?)를 하자는 것이 아닌, 내/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말)
- 26 장 인구조사 이후에는 어디에도 죽음, 불평, 반항도 없다. 그런 기록이 없다.
- 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으며, 이들에게 하는 말이 신명기의 관심사 (다음 주 주제).

II. 주제

A. 법과 질서(Law and Order)

- 법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시내산 언약과 법의 선포역시 딱딱한 율법의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있다. 출애굽기의 예로, 이야기(19 장)--법(20:1-17)--이야기(20:18-21)--법(20:22-23:33)--이야기(24 장)--법(25-31 장)--이야기(32-34 장)--법(25-40 장).
- 시내산 계약=> 종주조약(Suzerain/vassal treaties)
 - 1) 전문(preamble): 종주(국)의 정체성 확립
 - 2) 역사 서문(historical prologue)
 - 3) 계약의 요구사항(stipulations)
 - 4) 조약본문 예탁, 전시(deposition or display of the text)
 - 5) 증인(witnesses)--증인 명단은 신들
 - 6) 저주와 축복(curse and blessings)
- 언약의 핵심. 누가 우리 하느님인가? (정체성 문제)
 - “And I will walk among you, and will be your God, and you shall be my people” (레 26:12) // 창 17:1, 7. Cf. 창 28:21; 출 6:7
 - 아브라함(individual)과의 언약이 공동체(communal)언약으로 발전. 법과 질서의 목적은 새로운 역사적 상황하에서 언약관계로 뭉친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신 5:33). 이는 또한 창조질서와도 맞물려 있다 (창 1:28; 2:15-17).
 - 사제신학에서 이 질서와 무질서의 관계를 holy/profane, clean/unclean 로 구분한다. 곧 공동체의 질서에 어긋남이 profane, unclean=> 문화, 사회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함(정결법, 식이요법 => 인류학자,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1966).

B. 장막(mishkan, מִשְׁכָּן, tabernacle)

- 신의 임재를 상징. 신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으며, 또한 일시적 만남이 아니 지속적 만남. 한 마디로, 더 이상 인간이 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옴 (cf. 요 1:14; dwell, σκηνώω << σκηνή << מִשְׁכָּן, tabernacle).
- 예배는 곧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일상생활과의 분리가 아닌, 삶의 변화(transformation)를 뜻한다. 오경의 중심부에 레위기가 위치하고, 레위기는 성막/장막생활의 규범을 나열한다.
- 장막은 성전과 달리, 유동성을 의미한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움직인다. (현 질서/체제 속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 하느님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과 대립적 입장. 출애굽기 32-34 장의 금신상은 이런 ‘건축’을 통해 신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며, 그런 욕구에 구속될 수 없는 신성을 중시하고, 사제신학에서 전면배치.

생각해 보기

1. 정체성(story)과 행동윤리(law)는 함께 간다.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2.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과 질서(Law and Order)인가? 여기서 누구는 누군가?